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앙갚음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앙갚음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앙갚음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앙갚음	☒	☒
앙가품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앙갚음'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앙갚음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앙갚음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앙갚음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앙가품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앙갹함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안갚음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안가품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앙가품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양값음
20세기현재
- 양가품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6종

양가품, 양갑흙, 안값음, 안가품, 양가품, 양값음

ㅏ 양값음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ㅓ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양값음’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ㅏ 말의 구성과 어원

‘양값음’은 원한을 품고 양값음하려고 버리는 마음을 뜻하는 한자어 ‘悋’을 한글로 표기한 ‘양’에 명사 ‘값음’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을 뜻하는 명사 ‘안’에 명사 ‘값음’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ㅏ 표기와 소리의 특징

후자의 경우에는 ‘안값음’의 제1음절 종성 ‘ㄴ’이 제2음절의 초성 ‘ㄱ’에 동화되어 ‘양가품’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안값음’, ‘양가품’, ‘양가품’, ‘안가품’, ‘양갑흙’ 등도 나타난다. ‘양가품’은 ‘양값음’을 연철 표기한 것이고, ‘양가품’은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ㄹ,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ㅏ’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 ‘양가품’의 제3음절 ‘품’을 ‘품’으로 표기한 것이다.

‘안가품’은 ‘양가품’의 제1음절 종성 ‘ㅇ’을 ‘ㄴ’으로 표기한 것이고, ‘양갑흙’은 ‘ㅍ’을 ‘ㅂ’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이다.

ㅓ 문헌 속의 양값음

전체 용례 6개

20세기 양가품, 양갑흙, 안갠음 외 3종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양가품, 양갑흙, 안갠음, 안가품, 양가품, 양갠음

📖 출처 1920 동아일보 5월 23일 4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내가 너를 리 빅작 부인에게 주지 안이한 양가품이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5 조선일보 4월 9일 석간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아니올시다 양갑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7 조선일보 4월 12일 석간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그런 모진 안갠음을 받어서 자괴 몸 하나도 보전하지 못하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8 동아일보 4월 9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평양 덩거장에서 당한 모욕에 안가품을 하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30 동아일보 12월 6일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이 싸닭은 그들 중의 한 명이 당시 일본인의 손에 총살당한 양가품을 하느라고 그러한 것이라 한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백가에게 대한 양값음은 넉넉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양값음에 관한 주석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4)과 《큰사전》(1957)에서는 ‘안값음’과 ‘양값음’을 다음과 같이 뜻풀이하고 있다. [예1] 안값음: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예2] 안값음: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가 줌. [예3] 양값음: 남이 저에게 해를 주었을 때에, 저도 그에게 해를 주는 행동. [예1]과 [예3]을 비교해 보면 ‘안값음’의 제1음절 종성 ‘ㄴ’이 제2음절의 초성 ‘ㄱ’에 동화되어 [양가ㅅㅑ]으로 발음되는 현상에 의해 ‘안값음’의 표기가 ‘양값음’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으로, 원형태가 ‘양값음’인데 이를 ‘안값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 표기를 ‘안값음’으로 잘못 교정한 것일 수도 있다.



양값음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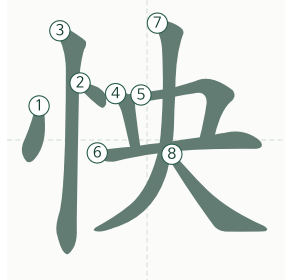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양값음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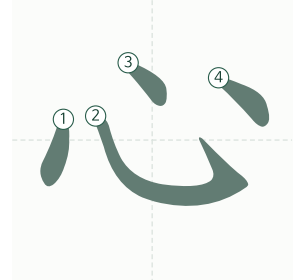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快 뜻·음 원망할 앙
총 8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快/

心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心/